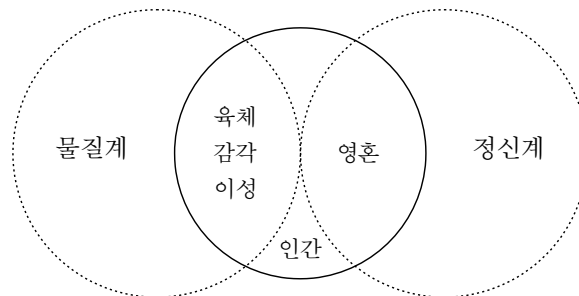


이원론을 극복하자

성인경

이원론(dualism)이란 서로 환원이 불가능한 독립된 두 개의 실체 또는 원리를 인정하고 그 두 실체 혹은 원리로부터 일체의 사상을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선과 악 등의 대립된 두 가지 원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에만 이원론이 있는 줄로 아는데 동양에도 이원론이 있습니다. 즉 서양에 '정물이원론', '영육이원론', '물심이원론'이라는 것이 있다면 동양에는 대표적으로 '이기기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이원론은 플라톤(427-347 B.C.,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Socrates의 제자)에 의해 그 사상적 정초가 놓여졌지만 서양 지성사를 통해 줄곧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 이원론의 발전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플라톤의 '정신계와 물질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관과 객관'에서 시작하여, 아퀴나스의 '은총과 자연', 데카르트의 '육체와 사유' 물심이원론, 라이프니츠의 '가능계와 현실계', 칸트의 '예지계(睿智界)와 현상계(現象界)' 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서양 이원론의 기본 사상은 이 세상을 정신계와 물질계로 나누고 정신계에는 영혼, 예술, 철학 등이 속하며 이것들은 불변하며 완전하고 영적인 실재하는 이데아라고 보았던 반면에, 물질계에는 자연, 육체, 감각, 이성이 속하며 이것들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며 가상적 그림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물이원론(精物二元論)' 혹은 '영육이원론(靈肉二元論)'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이원론은 이기론(理氣論)으로 알려진 것인데, 서양 이원론이 세상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었던 것이, 동양 이기론은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이(理)'라고 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기(氣)'라고 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이하학적인 세계로 설명하고, 우주의 질

서로서의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를 논하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랬듯이 동양에서도 이원론이 일원론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원론이 낳은 신앙적인 문제들

지난 세기에 이름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는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 다음으로 용감하고 그럴듯한 신조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이원론의 논리가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크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모든 문제가 이원론에서 온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의 파장이 큼니다. 여기에서는 서양 이원론의 악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겠으나 필요에 따라 동양 이원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이원론은 세상을 성속(聖俗)으로 나눕니다.

이원론에 의하면, 정신계에는 영혼, 철학, 예술이 속하며 이것들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실체적인 이데아(Idea)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물질계는 세상 만물과 인간의 이성 등이 포함되는 것인데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비실재적인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신계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불멸하며 거룩한 것이며 영적이지만 물질계에 속한 것은 세속적이고 ‘비 영적인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동양 이원론의 뿌리인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농사를 짓거나 손으로 뿔 만들거나 상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천하게 여기고, 공부하고 글 쓰고 풍유를 즐기고 제사, 예식 등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삿날이나 혼례식, 장례식과 같은 의례일이나 설, 추석 같은 명절은 성스러운 날이요, 이를 제외한 모든 날은 속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속이원론은 인간 생활을 우열로 분열시킵니다. 물질계라고 말하는 속된 것들 중에는 돈 벌고, 일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 등은 모두 정신적인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정신계라고 말하는 예술 행위나, 철학, 기도 등은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고 물질계보다 우등하다고 말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 우열로 쪼개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중에도, “밥하는 것과 성경공부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적이냐?”고 물으면 “성경공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직업 귀천사상도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성직(聖職)”이라는 잘못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다 하나님께 영광된 직업인데도, 어떤 직업은 거룩하고 어떤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과 선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일이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핑계로 텐트 짓는 것을 천하게 여겼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성속이원론은 성스러운 날의 걸치레를 조장합니다. 흥부를 볼까요? “가난한 흥부가 제 탄엔 양반이라고 성스러운 날 정장을 차려입은 꼴 좀 보게. 위가 터진 것애다 삭아 바스러진 것 테를 실로 여미고 노를 꼬아 갓끈을 삼아 쓴다. 헌 고의적삼 입으니 헤져 살이 울긋불긋 드러나고 열두 토막이든 배 두루마기 물레 끈으로 죄어 맨다. 목만 남은 버선에 밀이 뚫린 나막신 끌고, 건기침하며 집문을 나섰다.” 여러분 중에도 속은 텅텅 비어있으면서 옷만 번지르르 하게 빼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

습니까?

2. 이원론은 염세주의를 지양합니다.

정신과 물질을 대립관계로 분리하고,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은둔하거나 반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사막 성자’, ‘나무 위 성자’ 등 경건주의 운동이나 수도원운동이 이런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추악한 세상에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 ‘가장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속세를 떠나 산 속에 있는 절이나 심산유곡의 기도원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멀면 멀수록 더 고상하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복잡한 세상을 떠나 고요한 수도원과 기도원과 같은 곳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원론은 ‘고립 문화(ghetto culture)’를 부추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들만의 고립적인 문화 혹은 기독교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키취 문화’ 속에 살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세상을 등지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울타리 속에 숨자는 것이며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영성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1세기 콜로새 교회는 다분히 염세적이고, 금욕적이며, 더 높은 영적 생활(super spirituality)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콜로새서 2:16-22). 콜로새 교회 사람들은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신비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피하기는 쉬워도 죄와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도피한다고 죄와 싸우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맥콜리(R. Macaulay)가 잘 지적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원론은 금욕주의를 부추깁니다.

이원론은 육체를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정신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원론에서 출발한 사상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발생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즐기거나 학대하거나 금욕하는 것을 높은 영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불교와 만나서 금욕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금식이나 고행을 추구하는 것 등은 육체를 악하게 보는 이원론에서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이원론은 결국 육체를 악하게 보게 만듭니다. ‘육체(body)’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중요시하다 못해, 사람이 육체를 가지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여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마

치 육체가 악한 양 육체를 확대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수면, 휴식, 놀이, 성 생활 등을 비 영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엄격한 기도와 금욕으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르낙(A. Harnack)은 이러한 행태를 영지주의라고 규정했고, “그것은 기독교를 철저히 헬라화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정신에 물든 사람은 부부간의 성 생활마저도 비 영적으로 간주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성 행위 자체를 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반대하거나 어떤 식물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일하던 교회에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디모데전서 4:3)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짓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2)고 단정 지었습니다.

4. 이원론은 인간성을 무시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합니다.

이원론은 인간을 필요 이상으로 비인간화시킵니다. 플라톤은 정신계와 접촉하는 ‘신성한 광기의 네 가지 노하우’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네 가지는 모두 인간성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의 문을 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란 예언(prophecy), 치유의 광기(Healing madness), 예술적 영감(Artistic inspiration), 신성한 사랑(Divine Love)입니다.

레놀드 매컬리와 제람 바즈는 “그 네 가지 방법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적인 체험의 무용성이다. 정신의 세계가 현현될 때 인간적인 것은 평가 절하되고, 마음은 거처할 곳을 잃으며, 창조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세속적인 것은 망각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론은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는 신과의 대화를 위한 최선의 도구로써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한국말은 방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런 이원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나 헬라어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나 음악 등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 성경이나 주기도문을 주문(呪文)처럼 수백 번씩 반복해서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념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를 머리 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통해 명상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람 바즈(Jerram Barrs)가 잘 지적했듯이, 그것은 “태양을 향해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무모한 영적 장난입니다.

플라톤에 영향을 받은 플로티누스(Plotinus)는 ‘초월적 명상’을 강조했고,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전적 무지의 길’을 제안했고, 로스키(Lossky)와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신인합일’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인간성이 무너지면 신비주의가 발동합니다. 이원론이 꽃피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신비주의가 창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원론은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지성, 즉 생각하는 것’을 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 이성주의를 부추깁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정신계에 속하는 “내면의 세계 소리를 들려주는 악마의 소곤거림”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이성’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했다고 전합니다. 지성을 물리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물질계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기독교가 지성을 신앙의 방해물이나

적으로 간주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철학과 토론 그리고 변증을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M. Luther)는 “이성은 마귀의 매춘부” 혹은 “악마의 창녀”라고 비하했는데, 그것은 그의 큰 과오였습니다.

서양교회는 이성을 무시한 결과 지적 주도권을 비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의 90% 이상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영혼이 메탈라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면 지성을 사용하는 토론과 변증적인 전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선포하거나 신유의 능력만 자랑하고 지식인들을 위한 차분한 변증과 토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울의 ‘아테네선교’를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변증과 토론을 무시하는 영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적으로 진리를 찾게 됩니다. 동양에서도 이성이 무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자(朱子)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자신의 윤리적 자아를 깨닫는 것(自意識)인데 그 윤리적 자아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지성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멈추는 것(fasting of minds)이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란 욕망과 감정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고(至高)의 지식과 진리를 아는 데는 지성보다는 감정이 더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황(李滉, 1501-1570, 조선 중기 학자, 정치가)의 주리론(선천적인 이성의 능력으로 사물의 이를 인식한다는 이론) 보다는 이이(李珥, 1536-1584, 조선 중기 학자, 정치가) 주기론(主氣論, 이성의 능력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해 사물을 파악한다는 이론)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진리 인식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원론을 극복하는 길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구시대적이고 대립적인 이원론 대신에 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다원론(多元論)’이 대답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개체와 개인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다가성(多價性)을 모두 인정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원론은 그 본래의 다양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절대성의 부재가 낳는 온갖 가치 판단의 혼돈 때문에 이미 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 정체성에 있어서 다원론은 이성에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양성애도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 결과 성적 정체성이 극도로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론(一元論)’이 대답일까요? 일원론은 대답의 단순성과 전체성이 그 매력입니다. 절대성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독단과 이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적 구조상 이원론보다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예외성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원론과 유사한 ‘단원론’이니 ‘단일론’은 용어상 성경적 대안과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하는 대안은 더 이상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하는 헛된 이론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통합론(統合論)’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처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성이 인정되는 통합론, 통일론, 연합론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다”는 것은 일원론이나 단원론이라기보다는 연합이요 통합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17:23, 로마서15:5, 에베

소서 4:3; 4:13, 골로새서 3:14) 통합은 변증법적 ‘종합’이나 조화주의적 ‘융합’과도 다른 개념인데,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에 의해 모든 사상을 분석, 비판,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통합론을 기초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원론을 극복하도록 애씁시다. 1)세상을 성속(聖俗)으로 나누기보다는 삶 전체를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2)세상을 등지고 도피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3)육체를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4)인간성을 무시하고 신비주의를 조장하기보다 새로운 인간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5)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성을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신앙의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